

“ 구원(soteria)이란 무엇인가? ”

■ 이종윤 원로목사

구원을 헬라어로 소테리아(soteria), 동사형으로는 소제인(sozein)으로 읽는다. 고전 헬라어에서 소테리아는 구출(구조) 또는 보존(보호)을 의미한다. 집을 떠난 사람이 자기 집이나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즉 안전보장 또는 위험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다. 몸의 건강을 말하기도 했다. 70인역 성경에서 소테리아는 일반적 안정과 보호로 썼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소테리아를 하나님과 흥정한다.(창 28:21) 요셉은 형들의 자리에서 컵이 발견되지 않으면 안전(soteria)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한다. 일반적으로 고난으로부터 구출될 때 또는 원수로부터 구조될 때 소테리아가 사용된다. 구원, 도움, 도피, 승리로 묘사된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소테리아였다. 홍해에서 구조는 특별한 소테리아였다. 인간의 힘이 도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소테리아가 온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 소테리아는 감사로 연결된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의 노래나, 사울로부터 건짐 받은 후 다윗의 찬송, 아들을 갖게 된 것을 안 한나의 노래들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었다.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구원, 보호, 섭리적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신약에서 사용된 소테리아의 특징은 유별나다. 소테리아는 하나님의 목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다. 신약에는 용서하신 사람에게 달래드려야 하는 노하신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는다. 진노로부터 자비로 변화될 하나님의 태도는 없다. 소테리아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할 자를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소테리아가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을 저주하시려 함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러한 이유로 소테리아는 거부될 수도 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부패한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좌절시킨다는 사실을 신약성경은 잊지 않고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에 있다. 하늘과 땅에서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행 4:12) 예수는 소테리아의 창시자(히 2:10)며, 근원이시다.(히 5:9) 예수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 사역자를 요구하신다. 바울이 유대인 몇몇이라도 구원코자 한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롬 11:14)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고전 9:22)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 관계에 있다면 배우자 구원을 위해 갈라서지 말라고 했다.(고전 7:16)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바울의 모든 소원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다.(고전 10:33)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말해 줄 입술을 필요로 하신다. 자기를 위해 일할 손과 그의 전령사가 될 사람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는 구원의 말씀이고, 구원의 길이며, 구원의 능력일 뿐 아니라 그 목적이 구원이다. 소테리아는 회개를 포함하고, 믿음과 인내, 진리의 사랑, 두려움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soteria는 그리스도의 계속된 사역을 포함한다고 한다.(히 7:25)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소테리아가 약속한 구출은 무엇인가? 동사 소제인(sozein)은 인간을 영생으로 구원하고, 육체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에서 구원은 전인구원 즉 영과 육의 구원을 말한다.

소테리아는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다.(마 9:21) 위험과 상실, 죄와 분노로부터 구원을 뜻한다. 그것은 종말론적 구원이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혼을 파괴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선물로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다면 그 구원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자신을 자랑할 수 없으며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엡 2:8, 9) 성경은 구원을 위한 값이 지불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지불할 능력도 방법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불하신 하나님의 지불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복케 하셨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 칭의의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고,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칭의의 수단은 믿음이고, 칭의의 효과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이 개인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은 구원의 본질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319호] 2012년 5월 5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교회에서의 네 번의 예배도 어려움 없이 평온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양보와 기도로 도와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현저히 감소되고는 있지만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므로 아직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의 4부 예배 형태를 온라인 예배와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이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전처럼 실시간 예배 시작 5분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처럼 1부와 3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접속방법은 이전처럼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규(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근형·오정녀(캐나다),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파, 사지, 에베네티, 스프로터바로이, 필리몬 프란소프, 수레시, 수버시, 알로롱, 비사누밴도, 보다소프, 린름, 수관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찬홍성임(필리우),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 십자가의 도! ”

■ **고전 1:18-21**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사람들을 택함을 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로 구분하는 것보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얻는 자들로 양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후 2:15절에서는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로 나누고 있는데 이런 구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여 구원을 주시면 불공평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텐데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을까요?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18절).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자신이 멸망 받을 존재로 인생을 끝마칠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얻게 될 자로 살아가는지를 규정하게 됩니다.

1. **조롱당한 십자가**
 물론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 헬라어 ‘로고스 투 스타우로’라고 쓰인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만이 사람을 멸망케 하는 곳으로 갈지 아니면 영생을 얻는 자리로 갈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각양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무기력하게 치욕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도살당하는 양처럼 도륙된 것에 대한 깊은 뜻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죽음이 예수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들은 화목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2. **십자가의 증언**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생복락을 얻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마련하여 주신 것은 마치 이집트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출애굽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사용하여 크고 강한 팔로 견제내신 하나님의 공훈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공훈하심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실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하심이 서로 일 맞추게 된 구원의 길로 설명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저주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한 번도 아들을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향하여 두 가지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는 어떤 것이든지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맺는 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선포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종교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모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설거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힘 있게 울려 퍼지게 하며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증거 되는 곳에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십시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와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오광환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노문환 장로
IV 오후 4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127: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6(어린이주일)...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9(5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1:18-2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하나님의 지혜...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569(44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IV 부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계 22:20 인 도 자

찬 송 199(234)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막 8:11-13 인 도 자

설 교 ...“표궐구지말고 표궐이되툼구랴” ... 인터넷 영상

찬 송 288(204)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정기당회 / 6일(수) 오후 7시 104호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이번주 심방 일정

1-4, 3-10, 11-2, 12-8, 13-11다락방

◆ 결 혼

1. 박광현 군(13교구 박성국 집사, 백정숙 권사의 장남)과 권태원 양(권오승, 이희승 씨의 장녀) /

5월9일(토) 오전 11시 노블발렌터 삼성점(02-540-0711) / 9호선 봉은사역 4번 출구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437명	257명	1,694명	1,834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4/2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4월26일	헌 금	29,665,350	
	말씀봉사비		26,947,000
	찬양대사례비		13,920,000
	급여		33,084,000
	교회학교교육비		7,570,000
	찬양운영비		7,477,750
	교회학교운영비		1,233,000
	선 교 비		1,800,000
	출 판 비		1,220,000
	인 건 비		6,072,000
	세금과공과		22,540
	복리후생비		673,200
	통 신 비		651,660
	수도광열비		185,040
	차량유지비		763,500
	도서인쇄비		24,000
	잡 비		9,000,000
	소모품비		29,990
	사무용품비		5,000
	수선유지비		242,000
	식당운영비		370,660
	합 계	29,665,350	111,291,34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